



금성방재공업(주)

상무이사 김 은 식

40년동안 생명을 지킨다는 자부심과 화재안전의 열정으로 외길만 달려온 화재안전전문기업 금성방재공업주식회사가 국민의 생명, 국민의 행복, 국민의 터전뿐만 아닌 함께 일하는 직장 가족들의 안전지킴이로 무재해 10배를 넘어 제39회 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기에, 2002년 무재해 10배도 달성할 수 있었고, 내년 10월이면 대망의 무재해 15배를 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표창 수상도 이러한 기반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상을 받고, 화려한 실적이 있다고 안전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와 내 가정, 회사를 위해 안전은 중요한 것이고, 이를 필요로 하기에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이룩한 안전문화가 오늘의 영광을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 금성방재공업(주)는 인식하고, 느끼며, 생각한 것을 현장에서 지켰고, 이러한 안전이 우리 금성방재공업의 신뢰도를 대외적으로 높인 것으로 우리 식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금성방재공업(주)에서는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소개바랍니다.

저희 금성방재공업주식회사는 1966년 처음 설립하여 40여년 동안 화재안전을 위해 외길만 걸어온 전문기업입니다.

끝없는 연구, 개발로 우수한 방재기술을 쌓아왔고, 보다 안전한 국민의 삶과 행복을 위해 오로지 한길만 걸어온 우리 금성방재공업주식회사에서는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 및 종합 방재시스템을 전문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NATIONAL 그룹의 송하전공과 기술협약을 체결하여 인텔리전트형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방재산업에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캐나다 EDWARD사와 기술협력으로 초일류 자동화재 탐지설비인 EST-3를 도입하여 방재산업에 크게 이바지 해왔습니다. 특히,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해 오던 단독경보형 화재감시기는 순수 국내기술로 자체개발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 화재 예방 지원사업의 물꼬를 틀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재사고 없는 안전세상”이라는 우리 금성방재공업주식회사의 꿈의 목표가 실현될

먼저 제39회 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귀중한 상을 받게 된 것은 어느 누구 한사람이 잘해서가 아니고 임직원 모두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실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실천이 중요한 것이지요. 스스로가 느끼고 실천하는 안전이 있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안전한 금성방재공업(주)가 있기까지 기반이 되고 있는 안전활동에 대해 소개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자랑 중 하나는 200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안전지킴이”입니다. “안전지킴이”라는 완장을 전 현장 직원 모두가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착용하는 것으로도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의식이 자리잡고, 전직원의 안전관리 자화로 서로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전사적 참여 운동입니다. 이는 포스코건설에서 벤치마킹하여 최우수업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 우리 회사는 건설현장에서 시공업무를 하다보니 현장시스템에 따라 안전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매일 아침에 시행되는 아침조회인데, 우리 회사 직원들은 이것과는 별도로 각 팀, 그룹별로 안전교육, 인사하기, 아침 체조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화재 관련 재해가 마스크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재안전시스템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말씀해주세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화재는 공장과 단독,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선진외국의 경우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2005년부터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아무런 규제도 없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크지요.

우리 금성방재공업주식회사에서 개발한 “X FIRE”는 무선이며 탈부착이 간편한 단독경보형 감자기로서 기존 건축물이

나 가정에서 화재안전지킴이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강제 규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보급률이 낮습니다. 또한 투자할 만큼 국민의식이 성숙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서민층에 화재 예방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영국의 경우와 같이 이사를 할 경우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설비 및 경보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금성방재공업주식회사가 지속되기 위해 계획하고 계신 것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지킴이”활동을 더욱 보완하여 생활 속의 안전지킴이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세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교육 프로그램 세분화는 공정별, 업무별 등에 대해 시청각 위주가 아닌 실습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안전교육 이수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국가나 전문기관에서 업종별 세분화된 실습 위주의 안전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최종덕 기자〉